

일본의 대표적인 건축가이자 도시계획가

Kenzo Tange

일본 히로시마 평화 센터 프로젝트 설계 참여로 유명세를 치른 건축가 단게 겐조. 그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도시계획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여 공간에 관한 그만의 재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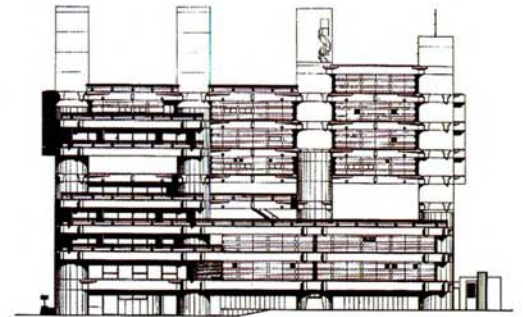
번역 우영선 에디터 김수진 자료 제공 마로니에북스(www.maroniebooks.com)

20세기 중반에 합리주의 양식은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고, 보편적인 설계 방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되었다. 일본의 대표적인 건축가이자 도시계획가인 단게 겐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. 첫째, 그는 서양에서 다듬어진 새로운 건축 개념을 자신의 고국에 보급하는 데 일조했다. 둘째, 그는 자신만의 감수성을 통해 절묘하게 이 개념을 발전시켜 나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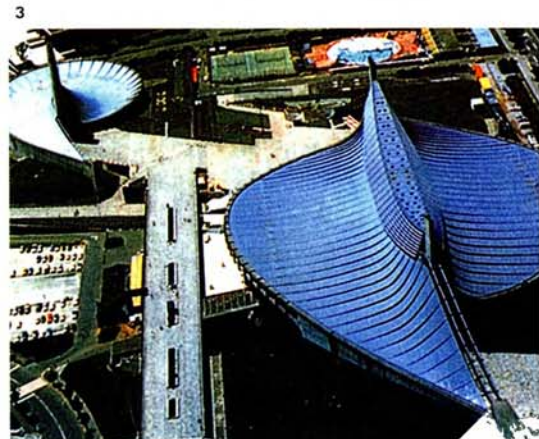


LIFE&WORKS

단게 겐조는 1913년 일본 남부의 이마바리에서 태어났다. 1935년부터 1938년까지 동경대학에서 공부한 후에 그는 르 코르뷔지에와 동업한 마에카와 쿠니오(Kunio Maekawa 1905~1986)의 사무실에서 건축 훈련 과정을 마쳤다. 동경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일년 후인 1946년에 단게는 교수직을 얻었으며, 1974년까지 근무했다. 그는 1946년에 사무실을 개설해 여러 가지 회사명을 달고 작업해 나갔다(1985년부터는 'Kenzo Tange Associates' 로 불렀



1 언론&방송센터(Press and Broad Casting Center)의 단면도. 1961~1966 야마나시, 코푸, 일본(Yamanashi, Kofu, Japan)이 복합 공간은 건축학의 원리에 따라 실제로 확장되도록 디자인되었다. 2 도쿄 스포츠 팰리스 안에 위치한 올림픽 경기장 1961~1964, 탑을 연상시키는 독특한 지붕 윤곽이 인상적이다. 3 위에서 내려다본 올림픽 경기장. 1961~1964, 도쿄. 4 도쿄에 있는 성 마리아 대성당 1963, 포물선 형태의 지붕은 종교적인 믿음을 고취시키는 상징물을 표현한다. 5 행정 센터(Administration Center) 새 도쿄 시청 1986~1995, 신주쿠, 도쿄, 일본.





적 전통에 스며들어 있는 야요이(Yayoi) 문화와 조몬(Jomon) 문화를 효과적으로 통합시켰다. 한편 동물의 메타볼리즘과 유사한 원리에 기초한, 그가 건축 구조에 대해 한 실험은 건축적 메타볼리즘 개념과 이론을 예고해주었다(메타볼리즘- '신진대사' 라는 생물학 용어. 1960년 세계 디자인 회의를 위해 결성된 그룹과 그 설계이론, 도시이론을 나타내는 말. 일본 건축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된 일본만의 독특한 건축 운동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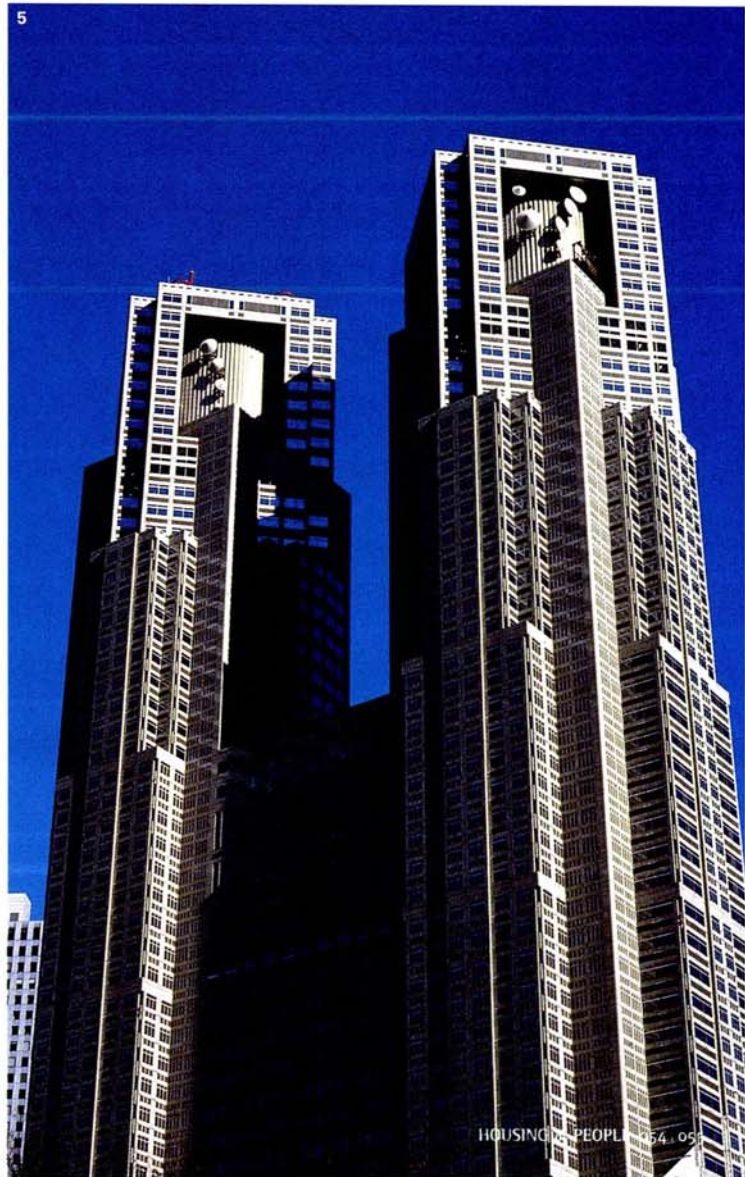
그가 1960년에 내놓은 동경 도심 재개발 계획을 통해, 만 위에 놓일 수도 있는 주거로를 따라 거대 구조물들이 발전하게 된다. 이로써 상업용, 행정용, 주거용 '섬들' 이 간선도로망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게 된다. 1970년대 이후부터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한 단계는 국제주의 양식에 가까운 건축을 만들어간다. 이 점은 동경 시 시청사와 볼로냐의 피에라 센터(Fiera District Center)에 잘 반영되어 있다. ㉞

다). 1949년에 그는 처음으로 중요한 설계를 맡게 된다. 그 프로젝트는 히로시마 평화 센터였으며, 이 프로젝트를 통해 그는 원자폭탄으로 황폐화된 도시에 경의를 표했다. 그가 중요한 건축가 대열에 합류하자 일본 문화계에서는 뜨거운 논쟁이 일어났지만, 사실상 주 비판 대상은 동경 시청사였다.

건물 자체는 르 코르뷔지에의 건축 방식처럼 고전적인 필로티(기둥) 위에 올려져 있지만, 단계는 건물 앞의 포장된 광장이나 그 주변 영역과 전통적인 일본식 정원이 조화롭게 연속된 공간을 이루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. 그러나 그가 자국에서 비난을 받지 않고 결국 받아들여지게 된 계기는 1959년에 저명한 건축상인 'architecture et d' Artbroad' 를 수여하면서부터였다. 이 일이 있은 후 그는 고후(Kofu)의 야마나시(Yamanashi) 신문사와 방송국에서부터 도쿄의 마리아 대성당(St. Mary's Cathedral)에 이르는 많은 핵심적인 프로젝트들을 맡았다.

그는 1964년 동경 올림픽이 열린 경기장에서 사용한 지붕 유형을 이 성당에 적용했다. 1만 5천 명을 수용하도록 설계된 이 시설의 특징은 케이블 체인으로 만들어진 우아한 곡선 지붕이다. 다양한 분절을 나타내는 이 지붕은 경기장 전체의 장식적인 모티브를 형성하고 있다.

1960년부터 단계는 도시계획으로 관심을 돌린다. 도시계획을 통해 그는 일본의 두 가지 고대 정신, 즉 기원전 1세기부터 현대까지의 예술



*전 세계 유명 건축물을 소개하고 있는(언더스탠딩 아키텍처(Understanding Architecture)). 1부에서는 공간의 개념, 비율에 대한 연구, 영토계획, 도시계획, 건물 타입과 스타일 등으로 유명한 건축물들을 분석하고 2부에서는 당대의 유명했던 건축가들과 삶의 이야기로 이어진다. 이미 영어와 이탈리아 그 외 세계 여러 나라에서 출간될 예정인 (언더스탠딩 아키텍처)는 마로니에북스에서 번역 출간될 예정이다. 참고로 이 글은 영어본을 참고했음을 밝힌다.